

# 목포,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속도

강점 활용·노후화 시설 정비 개선  
추억·문화공간 조성 활성화 도모  
신중앙시장 등 7개소 안전점검도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남진 야시장이 지난 17일 재개장했다. 남진 야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남진씨의 이름을 딴 남진 야시장은 2015년 말 첫 개장했다. 목포역에서 멀지 않고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인근에 위치해 여행객과 시민들 모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목포시는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청호시장 모바일 디지털시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2월말까지 250여건의 인터넷 주문이 이뤄지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년 이상 오랜 역사로 목포의 전통시장 1번지라 불리는 중앙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해 쾌적한 시설로 거듭난다. 동부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전문 인력인 시장매니저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7개 전통 시설 모두 전기시설은 물론, CCTV, 화장실 등 노후화 시설을 정비해 현대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시장·항동·신중앙시장등 전통시장 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전기화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모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군이 최근 일로읍 오룡차고지에서 100번 신규 버스노선의 개통식을 가졌다. /무안군 제공

## 무안, 남악·오룡 100번 신규버스 개통식

무안군이 최근 일로읍 오룡차고지에서 무안읍·남악·오룡 운행하는 100번 신규 버스노선의 개통식을 개최했다.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남도의원,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관계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100번 버스의 개통은 남악·오룡개발로 신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무안읍과 연결되는 직통 버스노선이 없는 아쉬움과 통학, 출·퇴근 등 교통이동의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산 군수는 “이번 100번 버스 운행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무안군민으로서 연대감 강화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운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좌석버스인 100번은 무안읍-청계면-목포터미널-이마트-옥암-남악-오룡(36.3km)을 왕복하는 노선으로 평일에는 1일 24회, 주말·공휴일에는 1일 16회 운행하며, 버스요금은 일반 2,100원, 초중고 및 청소년 100원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서영암농협이 최근 학산면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학이 머문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서영암농협 제공

## 영암 ‘학이 머문 쌀’ 미국 수출길 올랐다

서영암농협 10톤 선적식

서영암농협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서영암농협은 최근 학산면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학이 머문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상무, 박종탁 농협전남본부장, 강성일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단지 재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암쌀’의 새로운 비상을 축하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 맞춤형 쌀인 ‘학이 머문 쌀’의 이번 선적 규모는 총 10톤으로 미국 서부지역의 마트 9개 지점에 납품될 계획이며, 향후 전체 계약 물량 400톤이 순차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김원식 서영암농협 조합장은 “쌀값 하락과 수입 등으로 국내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에 나서게 돼 의미가 깊다. 이번 쌀 수출을 계기로 새로운 판로가 열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는 축사를 통해 “‘학이 머문 쌀’ 미국 수출로 영암쌀의 우수성과 명성이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규 판로 개척에 함께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은 배, 파프리카, 녹차, 멜론 등 농산물 수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지난해 53억원의 판매 소득을 올렸다. 올해에도 수출 기반 구축의 활동보폭을 넓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 국내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 “강진 금곡사 벚꽃 보러오세요”

삼십리길축제 31일부터 개최

제6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가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병영성축제와 같은 기간에 연계해 추진된다. 특히, 만개한 금곡사의 아름다운 벚꽃은 축제의 가장 큰 흥행 요소로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벚꽃축제장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 노래자랑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벚

꽃길 느리게 걷기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는 각종 모양의 도장에 잉크를 묻혀 손수건에 찍어보는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강진군의 역사와 벚꽃에 관한 유래 등 다양한 퀴즈를 맞춰보는 ‘벚꽃 골든벨’, 축제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사진을 찍어드려요’, ‘타로카드 점보기’ 등 색다른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선보인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 함평-bhc그룹,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 맞손

함평군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bhc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bhc그룹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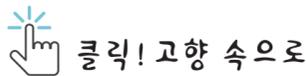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임금옥 bhc그룹 대표이사, 금석현 농업회사법인해성 대표이사, 호남정보고 고인수 대표이사, 오재갑 제일 A&H 대표이사, 함평군 양파생산자협의회 정찬행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bhc그룹은 bhc치킨 외에도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창고43, 족발상회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 외식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관내 농가는 우수한 품질의 함평산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bhc그룹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상호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양파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을 비롯해 해성푸드원을 통해 라면스프, bhc치킨 소스 원료로 연간 910톤 가량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 무안, 고향사랑 홍보대사 12명 위촉

무안군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민으로 이뤄진 무안군 고향사랑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무안군 고향사랑 홍보대사는 유명인이 위촉되는 타 시군과 달리 지역민으로 이뤄졌다.

지방소멸 방지,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

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깊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홍보대사를 활용해 예비 기자와 양방향 소통에 힘쓰는 것으로 읍면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 완도경찰, 신학기 교내 불법촬영 집중점검

완도경찰서(서장 정원근)는 완도 교육지원청·학교 등과 협업체를 최근 노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학교 주변 등 치안위험요소 점검개선 및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안 관련 설명회와 교내 화장실 불법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탐지장비(렌즈탐지형, 적외선카메

라 등)를 활용해 교내 화장실 내 위험 요소인 장문, 잠금장치, 구멍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을 확인·점검하고,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권고하는 등 불법촬영 선제적 예방 및 위험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 영광곳간 나눔실천 착한가게 222호점 현판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 배수로에 있는 홍시컴퍼니농업회사법인(주) (대표 심성미)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2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홍시컴퍼니는 2013년 회사를 설립, 직접 생산한 농산물(감)을 활용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유통하는 6차 융복합 농업회사다. /영광=곽용순 기자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심성미 대표는 “지역민들과 함께 아픔과 행복을 같이 하고 싶어 영광곳간에 참여했다”며 “작은 기부지만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